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안전-주거 등 노동부-국회-자치단체가 함께 챙긴다.

- 고용노동부-국회-자치단체 합동, 외국인 근로 농촌현장 방문 -
- 노동인권 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이름 부르기 캠페인」 시작 -
- 인권침해 신고 활성화 위한 「집중 신고기간(8.11.~8.29.)」 운영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8.8.(금) 10시,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했다.

이번 합동 현장방문은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동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시찰]

먼저, 재배·주거시설 등 현장시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난 7.17.(목)부터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주거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유희태 완주군수의 안내로 진행됐다.

외국인노동자의 숙소를 방문하여 냉·난방 설비 및 시설을 점검했다. 기존 주택을 보수하여 독신자, 기혼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양질의 정식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주를 격려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주거 생활과 사업주의 숙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어서, 방문단은 출하 작업에 한창인 상추재배 시설을 찾아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농가에 계신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이상 반드시 휴식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사업주에게 당부했다.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신고

[간담회]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낯선 한국에 취직한 젊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생생한 한국의 직장 생활, 농촌 생활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는 한편,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안전 및 온열 예방 용품을 직접 전달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존중에 대한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의 실천 의지를 설명했다.

[외국인 이름부르기 캠페인]

특히, 김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존중, 인권존중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의 추진을 알렸다. 정부 측 참석자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이름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미리 준비하여 작업복에 부착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명찰을 제공, 사업주에게는 인권·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단체 및 지역 인권단체 등 협력을 통해 캠페인을 모든 일하는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노동자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추진한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한편, 최근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날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신고·상담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을 발송한다. 김 장관은 오늘 방문을 계기로 안내문을 외국인노동자 등에게 직접 전달하고, 숙소 내에 게시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8.11.(월)부터 8.29.(금)까지 3주간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아울러, 8.20.(수)부터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소속 노무사·근로감독관이 통역요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온라인, SNS, 리플릿 및 자치단체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용허가제 외의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노동인권 신고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등을 분석,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국회·자치단체가 함께 ‘인권·안전·주거’ 등 노동조건이 가장 취약한 농촌 외국인 노동현장에 방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차별없는 노동권 신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괴롭힘, 폭력 등 인권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전히 열악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문제를 지적하며 “주거 환경은 노동권을 넘어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일하는 모든 외국인의 노동권 보호·지원과 차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한은숙 (044-202-7157)
		담당자	사무관	손동희 (044-202-7149)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수급대응TF	책임자	팀 장	임희종 (044-202-7755)
		담당자	사무관	김정천 (044-202-7223)
			주무관	김선빈 (044-202-7759)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팀 장	신욱균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박현건 (044-202-8891)
			사무관	원치욱 (044-202-8893)
			주무관	한진우 (044-202-8893)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박종길 (044-202-7612)
			주무관	오성곤 (044-202-7531)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기획부	책임자	부 장	김지연 (052-714-8541)	
	담당자	과 장	장서연 (052-714-8585)	

붙임 1**흑서기 농가현장 및 외국인 주거시설 방문 계획**

□ 개 요

- 고용노동부-국회-자치단체가 함께 외국인 근로 농촌 현장을 방문 하여 폭염 대비 작업장, 주거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 점검
- 노동인권 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이름 부르기 캠페인」 및 인권침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 신고기간(8.11.~8.29.)」 운영 안내 등

□ 주요내용

- 일시 : '25. 8. 8.(금) 10:00~11:30
- 장소 : 전북 완주군 소재 농촌마을(후상삼경로회관)
* 완주군 용진읍 상삼1길 13-8
- 참석 : (고용노동부) 장관, 광주고용노동청장, 국제협력관
(국회) 안호영 의원
(자치단체) 완주군수, 완주군의회 의장
(사업장) 농장 대표 2인, 외국인노동자 4인

□ 세부일정

※ 장관 인사말씀까지 공개(간담회 비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 ~ 11:30	20' ■ 숙소방문	
	20' ■ 작업현장 시찰	
	10' ■ 이름표 부착 및 안전용품 전달	이름표 전달 및 부착 쿨토시, 쿨타월 등 전달
	5' ■ 장관 인사말씀	
	35' ■ 간담회	농장주 2명, 외국인 4명 참석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

차별과 인권침해 등 부당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① (근로조건) 내국인 대비 임금차별 등 근로조건 차이 및 임금체불

- “회사가 어렵다”, “외국인이니까” 라며 임금 및 각종 수당, 퇴직금 차액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 “일이 바쁘다”, “돈 벌러 오지 않았냐” 라며 휴게·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

② (폭언·폭행) 업무지시, 교육 등을 가장한 폭언·폭행, 괴롭힘

-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욕설 또는 신체적 타격 등 일터 내 폭언·폭행, 괴롭힘
- 업무지시(교육)를 핑계로 또는 기숙사 내에서 과도한 신체접촉 등의 성희롱·성폭력

③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 은폐 및 산재보상 신청 기피

-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 은폐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등 보상 청구를 막는 행위

④ (인권침해) 사업장 밖 다양한 인권침해 행위

-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제공, 과도한 숙식비 공제
- 신분증, 통장 압수 등 이동권 제한하는 등의 기본권 침해 행위

차별 등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 고 처 전국 노동관서 민원실, 고용센터 다국어상담원, 외국인력상담센터 등
 ※ 외국인력상담센터(T. 1577-0071) 등을 통해 17개국 언어로 상담 및 신고 연계 가능 <뒷면 참조>

집중 신고기간 '25. 8. 11.(월) ~ 29.(금)

신고·상담의 날 '25. 8. 20.(수)부터 매주 수요일, 고용센터 외국인력팀의 「출장신고센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받습니다.**”

차별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최초 3년간 3회+1년10개월 간 2회)
- 특히, 휴·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주거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사업주 동의가 없더라도 횡수 제한없이 사업장변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 외국인력상담센터(T. 1577-0071) ● 전국 노동관서 다국어상담원 연락처('25. 8월 기준)

관서	가능 언어	다국어상담원 연락처	관서	가능 언어	다국어상담원 연락처
중부청	우즈벡어, 러시아어	032-460-7135	양산지청	미얀마어	055-330-6448
	태국어	032-460-7136		영어, 러시아어	055-330-6450
	베트남어	032-460-7137		캄보디아어	055-330-6451
인천북부지청	캄보디아어	032-540-2097		중국어	055-330-6432
부천지청	방글라데시어, 영어	031-999-0907		네팔어, 힌디어	055-330-6446
	인도네시아어	031-999-0908	베트남어	055-760-6758	
의정부지청	몽골어	031-820-0824	진주지청	베트남어	055-760-6759
	네팔어, 파키스탄 (우르두)어	031-828-0823	통영지청	베트남어	055-730-1922
	베트남어	031-828-0902		대구청	중국어
	캄보디아어	031-828-0901	네팔어, 파키스탄어		053-667-6048
	미얀마어	031-828-0903	대구서부지청		캄보디아어
경기지청	우즈벡어	031-290-0879		인도네시아어	053-605-6576
	미얀마어	031-289-2208		필리핀어, 영어	053-605-6575
	캄보디아어	031-290-0880	포항지청	베트남어	054-288-3500
	네팔어	031-290-0876		네팔어	062-609-8686
	태국어	031-290-0888	광주청	캄보디아어	062-609-8687
안양지청	베트남어	031-463-0774		베트남어	062-609-8688
안산지청	미얀마어	031-496-1923		인도네시아어, 동티모르어	062-609-8689
평택지청	인도네시아어	031-646-1217	익산지청	네팔어, 힌디어	063-839-0040
	중국어	031-646-1213	군산지청	베트남어	063-450-0607
원주지청	영어, 인도어	033-769-0952	대전청	베트남어	042-470-8326
부산청	영어, 인도네시아어	051-860-2026		캄보디아어	042-470-8328
부산동부지청	인도네시아어	051-559-6606	청주지청	필리핀어, 영어	043-229-0755
부산북부지청	우즈벡어	051-330-9925	천안지청	네팔어	041-620-9582
	중국어	055-239-3553		베트남어	041-620-7465
창원지청	필리핀어, 영어	055-239-3552		캄보디아어	041-620-9553
	우즈벡어, 러시아어	055-239-3551		키르기스어, 러시아어	041-620-9583
	네팔어, 힌디어	055-239-3554	충주지청	네팔어, 영어	043-850-4052
	울산지청	우즈벡어, 카자흐어		052-228-1913	베트남어
			보령지청	베트남어	041-930-6267

※ 17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 예정